

새 신행공간 마련한 쌍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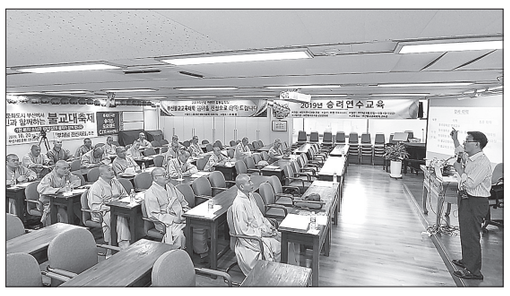
무설전 낙성… 맞배지붕 양식으로

화순 쌍봉사(주지 시공)가 9월 29일 경내 무설전과 공양간 낙성식을 열고 지역 포교사업에 나섰다. 낙성식에는 성호 스님(前 광주 관음암 주지), 영조 스님(쌍봉사 회주), 영명 스님(조계종 신행선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축 공간은 사찰의 종합 포교공간으로 활용된다.

목조건물인 무설전은 69평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존불과 지장 · 신중탱화, 신도들이 참여한 1천불이 봉안됐다. 향후 법회와 신도들 교육, 사찰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시설로 지은 법당에서 낙성식을 맞이하게 돼 기쁘고 감격스럽다. 쌍봉사의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은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이다. 그 불성은 차별이 없다. 수행을 하는 것은 닫혀 있는 불성을 열기 위함"이라고 불자들의 수행을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친 유신 30송을 배우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연수교육

재가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활동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스님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019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을 9월 30일~10월 4일 개최했다. 교육은 이만 동국대 명예교수가 '세친의 유식30송 강설'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만 교수는 유식학의 대가로 불리며 동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연수에는 부산뿐 아니라 창원, 울산,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스님들이 찾아왔으며 총 21명이 동참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38년 동안 재가자 교육으로 명성을 이어 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이번 승려 연수교육으로 재가와 승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도량으로 도약했다"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넓게 경남 및 경북지역의 스님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편의를 도모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국노래자랑 같은 구민 여가문화 장려"

Interview

'슈퍼스타 종로' 축제 여는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월 10일 복지관 예선 진행
총 10개팀 31일 본선 진출해
"제2의 인생 막 올리는 계기"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1년 열두 달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가을에 종로구민들이 자신의 끼를 펼치고,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국구 유명 행사인 전국노래자랑처럼 종로구만의 독특한 행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종로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축제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한다. 10월 10일 복지관 4층 종로마루홀서 예선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춤과 악기 연주, 가창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끼를 뽐내는 자리다.

특히 단순히 어르신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1 · 3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구민 모두를 배려해 눈길을 끈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행사에 앞서 10월 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 행사가 새로운 시니어 스타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본래 종로구청이 '종로구 어르신 노래자랑'으로 진행하던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2010년부터는 복지관이 행사를 주관해 매년 10월에 진행해왔는데요. 약 10년간 '종로 실버 뮤직 페스티벌' 등 변화과정을 거친 뒤 2016년부터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라는 이름으로 정착됐습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평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던 지역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 높은 복지관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사도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참가부문도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예선을 거쳐 10월 31일 오후 2시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서 본선이 펼쳐진다. 본선에는 총 10개 팀이 진출하며,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을 비롯해 본선 진출팀에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각 동별 응원상도 배정돼 있다.

"복지관 홍보대사인 '할담비' 지병수 어르신이 전국노래자랑에서 화제가 됐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으셨는데,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도 비슷한 기회의 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행사와 유사한 노래자랑에 참가한 경험이 없어야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인 발굴과 더 넓은 기회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2의 인생의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미얀마에 깨끗한 물을"

빛고을나눔나무 미얀마 정수시설 건립 추진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동현)는 10월 3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불교국가 아이들을 위한 정수시설 지원금 모연에 나섰다.

후원행사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낫마욱 파리야티 사원학교(Natmauk Pariyatti Monastery School)에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학교는 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1,545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교실, 기숙사, 도서관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식수 환경이 가장 취약해 재학생 1200여 명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이날 후원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아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11월 중순 현지를 방문해 완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후원행사는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동현 스님, 상임이사 보응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서대석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문화공연, 사찰음식 공양 순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9 빛고을관등회 사진전시회, 수자타(대표 혜법)의 무료 사찰음식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단체의 자원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반야학술상 본각 스님 수상

11월 3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올해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명예교수 · 사진)이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9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본각 스님이 선정됐다"고 10월 1일 발표했다. 연구원 측은 "본각 스님은 저서 〈화엄교학 강론(2018)〉을 비롯해 불교학자로서의 연구업적은 물론 한국비구니연구소장,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사회적 활동과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7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6년 동국대 철학과를, 1979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본각 스님은 일본 릿쇼대학과 고마자와 대학에서 유학하며 석 · 박사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학승의 길을 걸었다. 1992년부터 2017년 정년퇴임 전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계종 승가교육을 책임졌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학 발전에도 일조했다.

한편, 제9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영성음악제 '華藏' 앙상블

구례 화엄사, 9월 27~29일 화엄음악제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화엄음악제 '화장(華藏)'이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9월 27일부터 3일간 경내에서 진행된 화엄음악제에는 전통국악인 정가, 영산괘불대제, 화엄콘서트 등 독특한 음악세계와 영성을 주제로 매년 큰 화제를 일으키는 지역불교 최대의 음악축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의 쌀 회향한 관음사

콘서트로 마련한 쌀 1000㎏ 익산시에 기탁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와 관음사 청년회(회장 이강자)는 10월 2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앞서 개최한 제2회 이웃나눔 공양미 콘서트로 모연된 자비의 쌀 1,000㎏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덕림 스님은 "풍성한 가을,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모실 대웅전 건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태수행자 스스로 점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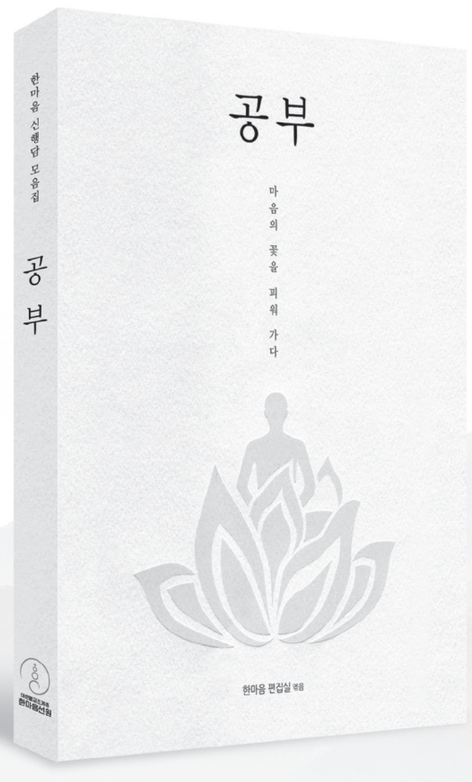
대구 대성사, 10월 1일 창립 52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영제)는 10월 1일 창립 52주년 기념법회를 경내 서원당에서 봉행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대성사 불자들이 신행공동체를 결성해 극락정토를 실현하는 도량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천태수행자는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